

2024년 해외전문체육훈련 결과보고

2024년 해외전문체육훈련(2024.08.03.~08.09. 베트남 호찌민, 나트랑)의 주요 활동 및 성과를 보고합니다.

해외전문체육훈련 결과보고서

2024. 08.

팀장: 스마트도시사업부 교통시설팀 박의원

팀원: 주차사업부 주차시설팀 장덕원

주차사업부 거주자견인팀 김민혁

□ 활동 개요 및 주요 성과

《 활동 개요 》

- 훈련 기간: 2024. 08. 03. ~ 08. 09. (6박 7일)
- 견문 지역: 베트남(호찌민, 나트랑)
- 훈련참여자: 일반7급 박의원, 일반8급 장덕원, 일반8급 김민혁
- 공공 자원 개방을 통한 수익 창출
 - 인도 임대를 통한 수익창출 사례(레탄뚝길, 판보이쩌우길 등) 탐방
 - 일정 크기 이상 도로의 일부를 근처 상가 상인들에게 임대하여 그에 따른 임대료 수익 창출
 - 공공기관 관광상품화를 통한 수익 증대 방안(중앙우체국) 탐방
 - 우체국 업무와 관광상품 판매를 병행하며 판매 수익, 청사 임대 수익을 통하여 수익 증대
- 관광도시의 도시화 속 문화유산 공존 대책 확인
 - 고 유적의 바람직한 유지관리 방안 답사
 - 손상 가능성이 높은 목조 구조물의 접근을 최대한 차단하고 손상이 적은 석재, 철재 유적을 관광지의 메인 상품화하여 개방
 - 도심 내 위치한 관광지와 도시의 공존 방안 탐구

□ 향후 계획

- 도심 내 공공 자원을 이용한 수익 창출 모델 제시
- 자연과 도시의 공존 방법 모색을 통한 도심 내 관광 상품 개발

I 해외전문체득훈련 일자별 내용 및 시사점

【1일차】

- 인천공항 - 탄손누트 공항 이동 (비행시간 5시간 10분)
- 탄손누트 공항 및 공항 내 이륜차 전용 주차장 시찰
 - 탄손누트 공항은 민사 및 군사 겸용 공항으로 규모와 수용 능력에서 베트남 최대의 공항이다. 인구, 관광객이 많아 혼잡한 호찌민시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교통, 수용 능력에서 포화상태가 됐지만 확장이 어려워 롱타인 국제공항이 국제선을 대체할 예정이다.
 - 공항 내 이륜차 주차장을 운영 중이라고 하여 탐방하였으나, 호찌민 시내 이륜차 주차장과 같이 유인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어, 번호 인식, 주차구획 구분 등의 기술력, 편의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2일차】

- 호찌민 중앙우체국, 전쟁박물관 방문
 - 호찌민 중앙우체국은 파리 에펠탑을 건축한 귀스타브 에펠의 작품으로 실내 아치형 천장은 오르세 미술관의 모습과 비슷하다. 실제로 우편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 서비스 제공 외 관광 상품 판매, 청사 내 구역 임대 사업을 통한 관광 상품화로 서비스,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모습이다.
 - 베트남 전쟁박물관은 매년 5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을 만큼 반드시 방문해야할 박물관 중 하나로 추천되는 곳이다. 입장료는 40,000VND(한화 약 2,200원)이며 입장 시 각 국의 언어로 설명이 가능한 헤드셋을 빌릴 수 있어 관람 편의성이 좋았다. 또한 박물관 역시 내부 카페 부지 임대로 공공기관 개방, 임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 측면에도 집중한 모습이 보였다.

【3일차】

- 도로, 인도 임대 시범사업 구역 시찰
 - 레탄똥길, 판보이쩌우길 일대는 호찌민시가 승인한 '도로, 인도 임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임대 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이다. 임대가 허용되는 도로, 인도는 왕복 2차선 도로, 인도 폭 최소 3m(보행자용 1.5m 포함)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도로 및 인도의 정비가 용이한 도로가 우선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단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동시에 진행하여 2024년 5월 시행 3주간 7억 5000만 동(2만9464달러)의 추가 세입이 발생했다고 한다.
- 호찌민 주요 견학 내용 및 시사점
 - 호찌민은 베트남 최대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로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풍경과 함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한다. 도심지 내 공공기관의 관광 상품화로 수익 증대뿐만 아니라 호찌민시를 찾는 주요 요인으로 발전시켜 매년 많은 관광수익을 얻고 있다.
 - 그러나 많은 인구와 방문객으로 교통 혼잡도가 높고 오토바이 이용이 많으며, 이로 인한 인도 내 이륜차 주차 점용이 교통 문제로 발전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호찌민시는 도로, 인도 무단 점거 단속과 더불어 임대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세수 증가와 함께 도로 무단 점거 또한 점차 줄고 있어 시범사업 구역을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한다.
 - 부천시 또한 중동먹거리, 부천역, 시청역 등 변화가 주변 인도를 이용한 시범사업 진행 등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 임대 시범사업 구역(레탄뜰길, 판보이찌우길)

【4일차】

○ 나트랑 이동 및 룡선사 방문

- 탄손누트공항 - 캄란 공항 이동 (비행시간 1시간 10분)
- 룡선사는 1886년 세워진 고 사원으로 나트랑 개발 전에는 인적이 드문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도시개발과 관광도시화에 따라 시내 중심부에 가까운 곳으로 발전했다. 특히 와불상과 대불상이 룡선사의 상징이자 나트랑의 랜드마크로 불릴 정도로 유명하다. 사원 내부에도 들어가보고 싶었으나 훼손 가능성이 높은 목조 구조로 되어 있고 관리, 종교적 이유로 출입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5일차】

○ 나트랑 대성당 방문

- 나트랑 대성당은 1928년에 건립되었으며,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건축물이다. 이 성당은 나트랑 지역의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로 기능하며,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꼭 한번 방문해야 하는 인기 관광지로 손꼽힌다.
- 나트랑 대성당의 건축 양식은 고딕 양식을 따르며, 건축 재료로 쓰인 벽돌과 콘크리트는 당시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건축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6일차】

○ 뽀나가르 참탑 방문

- 뽀나가르 참탑은 8~13세기에 지어진 힌두교 참파 왕국의 사원 유적지로 원래 10개의 탑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4개의 주요 탑만 남아 있다. 이들 탑은 다양한 시기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에 따라 각각 독특한 건축 양식과 장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뽀나가르 참탑은 베트남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로 베트남의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7일차】

○ 나트랑 - 인천공항 복귀 (비행시간 6시간 30분)

II

해외견문체득훈련 관련 사진

【베트남 중앙우체국, 전쟁박물관 방문】 8월 4일



- 박의원 : 우체국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아름다운 외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내부 또한 유럽에 와있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신비스러웠다. 우체국 업무(환전, 우편)와 동시에 여러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모습이 신기했고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는 모습에 우리나라의 공공청사와 차별점이 크다고 느꼈다.
- 장덕원 : 중앙우체국은 호찌민 방문 시 반드시 들러야하는 필수 관광지로 유명하다. 그만큼 멋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우체국 운영과 별개로 기념품 샵으로도 유명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될 만하다고 느꼈다. 전쟁박물관에서는 역사적 사실의 무게와 그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 김민혁 : 현대적인 서비스(우체국 업무)와 함께 오래된 우편 업무 기기들을 볼 수 있어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전쟁박물관을 보며 전쟁의 피해와 평화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으며 전쟁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상기한 계기가 되었다.

【나트랑 룡선사, 대성당 방문】 8월 6일 ~ 7일



- 박의원 : 나트랑 대성당은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건물답게 유럽의 건축 양식 모습을 보여 주변의 도시 경관과 이질감이 들면서도 잘 어우러져 신비했다. 룡선사는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이동 편리성이 좋았으며 좌불상의 웅장함에 압도당함을 느꼈다.
- 장덕원 : 나트랑 대성당은 건물 외관과 그 건축 양식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눈이 매우 즐거웠으며 분위기가 고요하고 평화로워 힐링되는 시간이었다. 룡선사의 경우 입구부터 베트남 불교 문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었고 대자연과 어우러진 경치를 감상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 김민혁 : 나트랑 대성당의 내부는 고전적이면서도 고풍스러운 느낌을 줬으며, 외부는 오히려 현대적인 느낌이였다. 룡선사는 거대한 좌불상과 주변 자연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이 느껴져 좋았으며, 이렇게 큰 불상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컸다. 많이 컸다. 어마어마하게 컸다.